

Tornado 3D를 만나다

방송제작에 모든 방송장비들이 그렇겠지만 문자발생기는 방송제작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장비다. Tornado는 2D, 3D의 여러 가지 이펙트들과 실시간으로 제작 송출이 리얼타임으로 가능한 장비로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문자발생기다.

2008년 4월에 Tornado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약간의 어색함도 잠시 강화된 3D 기능이 탑재되어, Tornado에 3D를 붙인 이름에 걸맞게 화려한 초기화면에서의 여러 툴(tool)과 하단에 깨알같이 박혀있는 Attributes 매뉴얼들과 Templates를 보여주며, 필자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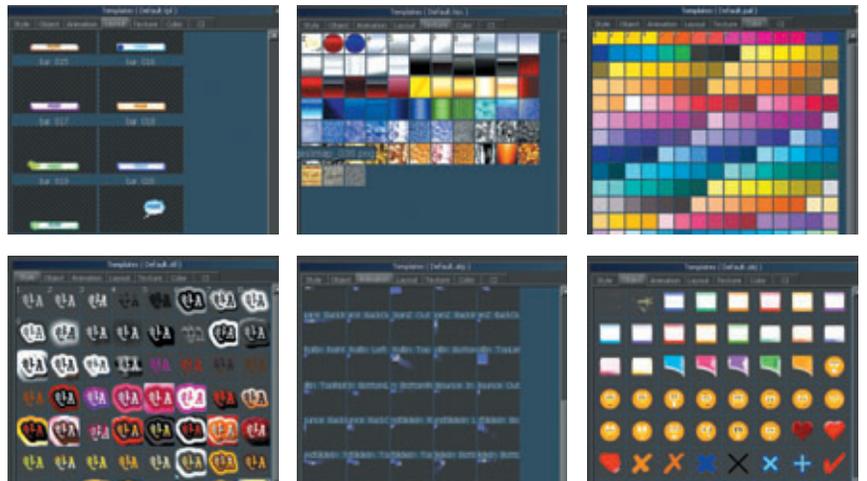
Tornado 3D는 그동안 사용했던 문자발생기와는 다른 생소한 기능들을 보여줘 마음속 한 구석에 이 새로운 친구와 어떻게 친해져야 할까라는 고민도 잠시 생겼다. 하지만, 필자 역시 90년대 중반 도스(DOS)를 기반으로 한 예프스캔(f-scan)부터 시작한 문자의 달인인 만큼 그런 고민은 잠시 접어 두고 일단 부딪혀가면서 조금씩 친해져 보기로 했다.



Tornado 3D – 기본 인터페이스



Templates



Attrib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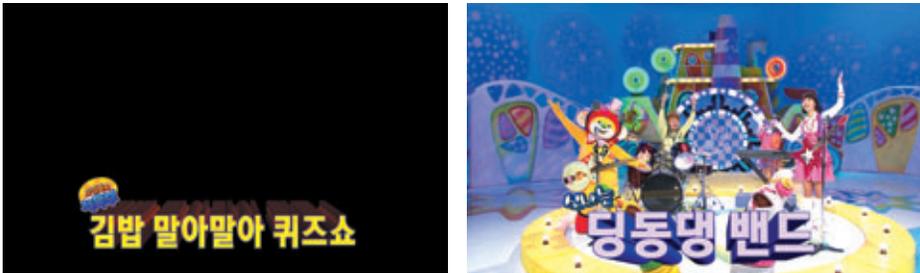
토네이도를 사용하며

Tornado는 방송에서 많이 사용되는 2D 전문 그래픽 프로그램인 After Effects 등과 는 효과나 이펙트 면에서 비교하기에는 대상이 다르다. 리얼타임 방식의 문자발생기로 서의 기능은 현존 문자발생기 중에서도 매우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문자발생기가 2D 이펙트가 주였다면, Tornado는 기존 문자발생기에서 볼 수 없 었던 3D 외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은 부분의 표현영역을 넓혀 주었다. 실시간 3D 텍 스트 & 그래픽 저작도구 내장해 Extrude, Bevel, Light를 지원하는 3D 텍스트 및 그 래픽 제작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3D 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로봇파워' 에 사용된 3D 효과]



['생방송 톡톡! 보너하니' 와 '모여라 딩동댕' 에서 사용된 3D 텍스트 효과]

또한, Sequence Taga 파일을 실시간으로 송출시킬 수 있으므로 Maya, After Effect 등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Sequence Taga 파일을 애니메이션 송출할 수 있 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기존 문자 발생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인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 기능은 플레 임 애니메이션 기능을 크기, 각도, 이동은 물론 Opacity, Crop, Blur, Repeat 등을 복 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저가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기에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객체 간의 재생시점 및 길이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타임라인으로 이 루어져 있어 모션그래픽을 보다 손쉽게 제작할 수 있으므로 제작 활용도가 상당히 높 은 부분이다.



'EBS SPACE'는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잘 활용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방송만 보면 Seq Taga 애니메이션이나 NLE 편집실에서 이펙트를 넣어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텍스트와 이미지에 적절한 무빙을 만들어 화면을 멋들어지게 연출할 수 있다.



그 외에 다양한 파일 포맷 import/Export 기능을 들 수 있는데, 비트맵 형식의 그래픽파일 TGA, PNG, JPG, PSD(레이어 Import 지원)와 벡터 형식의 그래픽 파일 Ai(Import 후, 수정 3D 활용 가능) 파일을 Import할 수 있으며, Maya(X file), Seq Taga, VRV(비주얼리처치 자체 동영상 압축 포맷) 등을 Import하여 송출할 수 있다.

Tornado 생방송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송출 도중 작업을 멈추지 않더라도 송출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송출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잘못된 페이지를 수정하고 송출 중인 내용에 새로 작업한 페이지를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방송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송출과 작업창이 분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기능은 완성편집실에서도 많이 활용되지만 생방송에서의 안전성 면에서는 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토네이도에 대한 기대

기존 자막이 단순한 정보전달 또는 번역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그 영역 이상으로 자막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으므로 CG디자이너들은 시청자들의 더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방송제작에 모든 방송장비들이 그렇겠지만 문자발생기는 방송제작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장비다. Tornado는 2D, 3D의 여러 가지 이펙트들과 실시간으로 제작 송출이 리얼타임으로 가능한 장비로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문자발생기다.

반면, 단점도 있다.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때 타임라인 작업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Group과 Ungroup시 효과가 없어지는 등)과 2D, 3D 이펙트 동시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스크롤에 별다른 이펙트효과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토네이도 버전이 2로 업데이트 되면서 저장시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도 생겼다. 펜 툴이 좀 더 일러스트처럼 디테일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포토샵 같은 기능이 있기를 바라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퀄리티에 관한 욕심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편하고 다양한 기능이 많지만 버전 1과 2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버전 3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기능이 업그레이드되어 사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안주하지 말고 계속 발전하는 Tornado가 되길 바란다.